Korean Labor for Japan's Aggression War in Saipan and Tinian.

As Japan provoked war with the United States in December 1941 with a surprise attack on Pearl Harbor, Hawaii, Koreans were forcibly mobilized for the war in the Pacific Ocean. During the Pacific War, Saipan and Tinian were important military bases for the Japanese military to supply war materials. The Japanese forced thousands of Koreans to serve as laborers on these islands, and many of them were killed in the war.

The Koreans who were forcibly sent to Saipan and Tinian suffered from extreme labor, including building airfields, transporting munitions, and digging air-raid shelters. There were approximately 5,800 Korean forced laborers on Saipan and 5,000 on Tinian. In 1944, ahead of the U.S. occupation of Saipan and Tinian, the Japanese attempted to massacre the Koreans on the islands, but it failed due to the landing of U.S. troops, which freed all of the Koreans who had been forcibly mobilized.

Many Koreans died during the harsh forced labor of the Pacific War, and their remains, long left in the jungle, were buried on the islands without identification. For the Korean victims who namelessly died, the Korean Peace Memorial on Saipan and the Korean Memorial on Tinian were built to commemorate their sacrifices to this day. As important reminders of the history of the forced mobilization and sacrifice of Koreans by the Japanese in the war, the memorials are historically significant to think about the value of freedom and human rights by opposing war and advocating peace.



티니안 비행장 활주로 Tinian Airfield Runway



사이판과 티니안에서 겪은 **한국인들의 강제징용**



사이판 해저의 태평양전쟁 당시 파괴된 비행기 잔해

Wreckage of a plane destroyed during the Pacific War beneath the waters of Saipan

일제는 1941년 12월 하와이 진주만을 기습 공격하면서 미국에 전쟁을 도발하였고, 태평양지역의 침략전쟁에 한국인들을 강제 동원하였다. 태평양전쟁 중 사이판과 티니안은 일본군의 중요 군사 기지로서 전쟁 수행 물자를 조달하는 거점이었다. 일제는 이 두 섬에 한국인 수천 명을 강제로 동원해 노역을 시켰으며, 강제로 끌려간 한국인들은 전쟁의 참화로 많은 희생을 당하였다.

사이판과 티니안에 강제 동원된 한인들은 비행장 건설, 군수품 운반, 방공호 굴착 등 극한의 노동에 시달리며 희생되었다. 사이판에는 약 5,800 여 명의 한인 노동자가, 티니안에는 약 5,000여 명의 한인이 강제 노역을 당하였다. 1944년 미군이 사이판과 티니안 점령을 앞두고 일본군은 한국인을 학살하려고 하였으나, 미군의 상륙으로 강제 동원 되었던 한인들은 모두 자유를 되찾았다.

태평양전쟁 당시 혹독한 강제 노역을 겪은 많은 한인들은 죽음을 당하였고, 오랫동안 밀림에 방치된 그들의 유해는 신원 확인 없이 섬에 묻혔다. 이름 없이 죽어간 한국인 희생자를 위하여 사이판에는 '태평양 한국인 추념 평화탑 (한국인위령평화탑)'이, 티니안에는 '한국인 기념탑'이 세워져 오늘날까지 그들의 희생을 기리고 있다. 평화탑과 기념탑은 일제가 침략전쟁에서 한국인들을 침략전쟁에 동원하여 희생물로 삼은 역사를 기억하게 하며, 오늘날에도 전쟁을 미워하고 평화를 사랑하여 자유와 인권의 가치를 되새기게 하는 소중한 역사적 증거이다.

사이판 태평양 한국인 추념 평화탑

(한국인위령평화탑)

• 7RJ3+7VG, Pidos Kahalo, Saipan 96950, Northern Mariana Islands



사이판 북부 마피산 언덕에 자리한 '태평양 한국인 추념 평화탑'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제에 의해 강제 동원되어 이국의 땅에서 희생된 수많은 한국인들의 넋을 기리는 장소이다. 징용, 징병, 위안부 등 다양한 형태로 끌려온 한국인들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극심한 노역으로 고난을 겪었으며, 많은 이들은 자신의 나라로 돌아오지 못하고 이곳에 묻혔다.

이 탑은 1975년부터 추진되어 1981년 '해외 희생 동포 추념사업회'의 주도로, 재일동포와 한국인들의 기금으로 완공되었다. 평화탑 정상의 비둘기 모습은 평화를 상징하며, 한반도를 향하고 있어 조국으로 돌아가지 못한 영령들의 넋을 고국으로 모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 Saipan Korean Peace Memorial

The Korean Peace Memorial, located on the hillside of Marfi Mountain in northern Saipan, is a place to commemorate the thousands of Koreans who were forcibly mobilized by the Japanese during World War II and died in a foreign land. The Koreans, who were forcibly sent to the island for impressment, conscription, and comfort women, Suffered from hard labor in harsh conditions. As a result, many of them were never able to return to their country and are buried here.

The Memorial has been in the works since 1975 and was completed in 1981 at the initiative of the Overseas Victims' Memorial Association, with funds from Koreans and Korean residents in Japan. The pigeon at the top of the Memorial symbolizes peace and faces the Korean Peninsula, signifying that the spirits of those who never returned to their homeland are being brought home.

티니안 한국인 위령비

▼ XJGC+PGR, San Jose, Tinian 96952, Northern Mariana Islands

티니안의 산호세(San Jose) 마을 인근에 위치한 한국인 위령비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제에 의해 강제 동원되어 이 지역에서 강제 노역으로 희생된 수많은 한국인들을 추모하기 위해 세워졌다. 1944년 티니안 전투 당시 수천 명의 한국인들이 이 지역에 강제로 동원되어, 일본군의 방어 작전에 참여하거나 군사 시설 건설 등의 노역에 투입되어 전쟁의 참화에 희생을 당했다. 미군이 1944년 티니안을 점령하기 전에, 일본군은 한인들을 전쟁 지역에 강제로 동원해 노역을 시켰고, 그 과정에서 많은 한국인들이 희생되었다. 미군이 티니안을 점령하면서 일본군의 학대를 받고 있던 한인 2,400여 명이 자유를 얻게 되었다. 자유인이 된 한인들은 미국의 대일전 승리를 기원하며, 노동으로 모집한 666달러를 미국 대통령에게 전달했다. 티니안에서 강제 노역과 전쟁으로 희생된 한국인을 추모하고, 비극의 재발을 막고자 고(故) 이영식 목사(대구대학교 설립자)의 주도로 이 위령비가 세워졌다.

Tinian Korean Memorial

The Korean Memorial, located near the town of San Jose in Tinian, commemorates the thousands of Koreans who were forcibly mobilized and labored by the Japanese during World War II on the island. During the Battle of Tinian in 1944, the Koreans were sent to the island by force to participate in defensive operations for the Japanese or to labor for building military facilities, and in the end, they died in the war. Prior to the U.S. occupation of Tinian in 1944, Koreans were forced to labor in the war area, and many



of them died during the process. The U.S. military occupation of Tinian freed more than 2,400 Korean who had been abused by the Japanese. The freed Koreans sent 666 US dollars collected from their labor to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in hopes that the United States would win the war against Japan. To commemorate the Korean victims of forced labor and war in Tinian and to prevent a repeat of the tragedy, the Memorial was built at the initiative of the late Rev. Lee Young-sik (founder of Daegu University).

티니안 원자폭탄 적하장 터

3JMM+FJF, Northern Tinian, Tinian 96952, Northern Mariana Islands

티니안 북부의 노스 필드(North Field)에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 육군 항공대의 509합동부대(509th Composite Group)가 인류 역사 최초로 원자 폭탄을 탑재하기 위해 사용한 시설이 위치해 있다. 이곳은 '리틀 보이(Little Boy)'와 '팻 맨(Fat Man)' 원자폭탄이 각각 B-29 폭격기인 '에놀라 게이(Enola Gay)'와 '복스카(Bockscar)'에 탑재되어 무모한 침략 전쟁을 도발한 일본을 응징하기 위해 히로시마와 나카사키로 날아갔다. 1945년 8월 6일 '에놀라게이'는 히로시마에 '리틀 보이'를 투하하였고, 3일 후인 8월 9일에는 '복스카'가나가사키에 '팻 맨'을 투하하였다. 이 두 폭격기는 모두 티니안의 노스 필드에서 출격하였으며, 이 시설은 인류 역사를 바꾼 중요한 시발점이 되었다. 현재 이적하장 터는 역사적 유적으로 보존되어 있으며, 방문객들은 그 역사적 순간을 되새길 수 있는 장소로 활용되고 있다.

Atomic Bomb Loading Pit on Tinian —

North Field in northern Tinian is the site of a facility used by the 509th Composite Group of the U.S. Army Air Forces during World War II to load the atomic bomb for the first time. The atomic bombs "Little Boy" and "Fat Man" were loaded here onto the B-29 bombers Enola Gay and Bockscar, respectively, and flown over Hiroshima and Nagasaki to punish Japan for its reckless war of aggression. On August 6, 1945, the Enola Gay dropped the Little Boy on Hiroshima, and three days later, on August 9, the Bockscar released the Fat Man on Nagasaki. Both bombers launched from Tinian's North Field, marking a pivotal moment in human history. Today, the site of the loading pit is preserved as a historic site and serves as a place to remember the historic moment.



사이판 일본군 위안소 동굴

Unnamed Road, Laulau Bay 96950, Northern Mariana Islands





사이판에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이 운영한 이른바 '군위안소'로 사용된 것으로 알려진 동굴이 존재한다. 이 동굴은 전쟁 말기 일본군이 전세가 불리해 지자 지상의 군위안소를 폐쇄하고, 성노예로 끌려온 여성들을 강제로 수용한 장소로 전해진다. 동굴 내부에는 야전침대의 흔적과 방으로 사용된 구덩이 등이 남아 있어 일본군의 반인륜적인 행각을 짐작하게 한다. 현재 이 동굴은 공식적으로 사적지로 지정되어 있지 않지만, 관련 연구자들과 현지 역사 탐방 기록을 통해 일본군 군위안소 관련 유적으로 주목받고 있다.

Japanese Military Brothel Cave on Saipan -

Saipan is home to a cave that is believed to have been used as a so-called "military comfort station" operated by the Japanese military during World War II. The cave is thought to be where the Japanese military forcibly housed women who were forced into sexual slavery after closing the above-ground comfort stations at the end of the war, when the tide turned against them. Traces of field bunks and pits used as rooms can be found inside the cave, suggesting the inhumane behavior of the Japanese military. Currently, the cave is not officially designated as a historic site, but researchers and local historical tours have drawn attention to it as the remains related to a comfort station of the Japanese military.

해외에서 만난 우리 역사 이야기 사이판·티니안편 Korean History Rediscovered Overseas [Saipan · Tinian]